

전남도 지방자치분권 로드맵 짚는다

도 차원 6대 전략 31개 과제 선별 대응 방안 마련 정부 종합계획 탄력 대응위해 TF팀 2020년까지 연장

전남도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을 협의하는 등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구성돼 당초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15.7% 수준으로, 전국 평균 34.2%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속적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이 선행돼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도 평소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늦었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자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강조해왔다. TF팀은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 및 민간·학계·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야 24명으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국정 참여,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편이다. 전남도는 TF팀 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 차원의 지방분권 주요 활동상황과 향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로드맵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6대 전략 31개 대응과제를 선별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또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목포·여

수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관 이관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중복된 기능과 조직은 이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 차원의 최적 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 자체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대응방안'을 마련, 연말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무안공항 활성화 대응 방안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이 2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데 따른 첫 실무 회의를 했다.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실무회의에는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관광협회 등도 함께 참석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향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발전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공항 통합절차와 경쟁력 확보 이행방안, 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적극 소통·협의를 하기로 했다. 실무회의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무안공항 통합추진, 통합후 가능 재정립, 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광주시, 전남도 등 11개 기관·단체 위원 29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원활한 무안공항 통합을 위하여 실무회의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되며 연간 50만명대 무안공항 이용객은 230만명대로 5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썩대밭 된 인니 팔루지역 강진이 강타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 지역을 1일(현지시간)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일대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돼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수출 호조...농수산물 수출액 사상 최고치

8월까지 19% 증가 244억달러 전남지역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이 주도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농수산물이 뒷받침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남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어난 244억 달러를 기록했다. 8개월간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최고치다. 2015년 205억9400만달러이던 수출액

은 2016년 182억1200만달러로 크게 떨어졌다가 지난해 205억3900만달러, 올해 243억7300만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어난 2억62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복 11.3%(300만 달러), 오리털 72.0%(1100만 달러), 유자차 21.5%(200만 달러) 등이 증가했고, 미역은 8.3%(1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한류 확산에 따른 한식 관심도가



광주시, 김치 세계화·관광 상품화

25~28일 세계김치축제 주는 배추·염장 등 양질의 원·부재료와 솜씨 좋은 김치 명인 등 좋은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있는 16개 김치 제조업체는 영세한 규모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 김치의 성공적인 상품과 산업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홍보, 판로확대 등 마케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계김치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남구 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만 생태공원서 즐기는 '맛의 향연'

남도음식큰잔치 12일 개막 시작을 알린다. 대표 프로그램인 남도음식 전시관은 주제관, 명인관, 사군관으로 구성돼 푸짐한 상차림을 선보인다. 전시관 내 별미방에서는 명인들의 '쿠칭 클래스'가 진행된다. 남도음식 피크닉 홀에서는 각 사군 고유의 단품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전남도와 중국 저장(浙江)성 교류 20주년을 기념한 '저장성 특별관'도 운영된다. 하루 100명에 한해 명인의 솜씨와 강진 대표 음식으로 차려진 '남도밥상 한상차림'을 판매한다. 유명 셰프 요리 시연, 다양한 요리교실, 음식만들기 등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옛, 밝은광주인과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